



심포지엄

Symposium

2009년 제11회 대학무용진흥회 심포지엄

“무용예술을 위한 안무 구성 탐구”

발제1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몸 움직임

(Spontaneous and Autonomic Moving-body)

발제2

댄스시네마 장르의 성립에 대한 시도와 고찰

- 시각의 카메라로서의 신체

■ 일 시_ 2009년 10월 16일(금) PM 4시

■ 장 소_ 신라대학교 공학관 101호



부산은행은 행복한 꿈을 키웁니다

부산은행은 지역 문화와 예술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
미술, 음악, 연극, 뮤지컬에 이르기까지
함께 느끼고, 함께 즐기는 문화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꽃 피우는 지역 문화와 예술,
부산은행이 함께 합니다.



| 09' 열린 바다 열린 음악회



| 09' The Classic 부산사랑 회양콘서트



| 09' 시민초청 오월꽃 콘서트

BS 부산은행

대동무용제

The 20th College Dance Festival 2009

BS 부산은행 과 함께하는

대동무용제

The 20th College Dance Festival 2009

2009. 10. 13(화) PM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대학무용진흥회
후 원 부산광역시 BS 부산은행 부산일보 K 국제신문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 의 부산대학무용진흥회 사무국 (051) 999-5301



인사말

Welcome Statement

벌써 무더웠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곧 이 해를 마감하는 12월을 눈앞에 두고있는 성숙한 결실의 계절 10월입니다.

부산에 위치한 대학교 무용학과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한 해 동안 노력한 결과를 지역주민들에게 보여드리는 부산대학무용제가 2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공연과 학술심포지움의 형태로 열리는 대학무용제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문화의 창달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올해로서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대학무용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저희 무용학과 교수 및 학생들은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았던 창작무용작품들을 중심으로 공연을 준비하고, 그 동안 성원해 주신 부산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시간 가운데도 부디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사랑 속에 힘차게 자라온 부산지역 대학교 무용학과들이 얼마만큼 성장하였는지 보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무용제에 여러가지 모양으로 지원과 후원을 해주신 부산광역시 관계자분들과 부산은행, 그리고 부산문화회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10월
부산대학무용진흥회 운영위원장 **황인주**

PNU, the Premier!



- **작품내용**
1장 진리 : 목적이 이끄는 길
2장 자유 : 혼란, 격동.
3장 봉사 : Global 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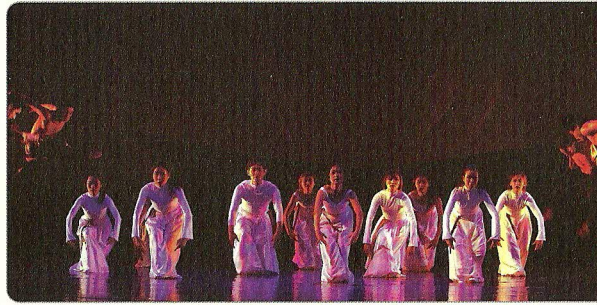
안무 Choreographer



주수광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 부산발레연구회 대표)

- **출연**
김정숙 소정민 윤은정 박종위 김한나 노옥희 백향은 손근희 송지혜 임정인 홍상은 강수민 김경민 김민지 박지혜 윤희진 이설희 임하연 정아르비 정재준 허러은 황선미 허종원

그루터기로부터



- **작품내용**
죽음마저 사라진 침묵의 공간 생명의 흔적은 작은 그루터기뿐 돌아오리니 돌아오리니 그루터기 한 귀퉁이에 남겨진 약속 길고 긴 암흑에 그마저도 지워지고 시간조차 미래로 흐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지워지고서야 절망마저 사라지고나서야 남겨진 씨 싹트리니 돌아온다 돌아온다 절망의 상처만 큼 깊은 생명의 호흡으로 그루터기 품었던 씨 약속으로 부활한다 그루터기로부터 돌아온다.

안무 Choreographer



김은이 (동아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 짓무용단 예술감독)

- **출연**
박연정 한경미 김정남 김나라 이해숙 여영민 최혜리 김혜원 김유리 김아영 배소정 장경복 김나영 김세정 윤소라 류지수 김민지 박혜리

Carmen 2009



- **작품내용**
본 작품은 열정의 화신으로 화려하며 자유로운 삶을 즐기는 매력적인 여인 카르멘의 매력을 이미 지화하였고 현대의 여인으로서 다양한 인생의 공통된 부분에 초점을 두어 카르멘의 인생에 비유하고자 하였으며, 오페라, 그리고 많은 예술 공연 작품에서의 재연을 통해 아름답고 깊은 예술성으로 널리 알려진 카르멘을 본 작품에서는 그녀의 혼란과 방황을 이미지로 추측하여 원작에서 재구성하여 표출하였다.

안무 Choreographer



정귀인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 경구인과 부산 현대무용단 단장)

- **출연**
강미애 송기혜 송수연 이한나 이해인 장보금 허은민 허하나 황재원 김미현 강어진 박묘연 서유경 송윤진 이수림 이선림 이예진 조희은 전예빈 최단비 최유정 최규식

La Bayadere (라 바야데르)



- **작품내용**
라 바야데르는 1877년 러시아의 Marius Petipa 에 의해 안무된 그 시대의 다른 예술과 오리엔트 관념론과 이국적 정서를 지닌 환상을 나타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1막 중 궁전축제 장면을 중심으로 무희들의 춤과 소품을 이용한 물동이 춤, 화려한 테크닉의 Gamzatti solo 그리고 슬프고도 아름다운 Nikiya의 극적표현을 Divertissement 으로 재구성하였다.

안무 Choreographer



신정희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 그랑발레단 예술감독)

- **출연**
서지연 정미경 최현순 김민정 김수연 김민지 박소라 이민지 김정희 정수현 김선혜 김유리 김수진 정유라 이해인 서지혜

비, 보다



- **작품내용**
처음과 마지막은 없다. 처음이라 여겼던 시점만 있고 마지막이라 손을 뺐던 그리움들만 뒤편의 무늬가 흐르고 있는 것. 처음이건 마지막이건 시간의 카테고리 안에서 흘렀을 뿐 거슬러 오르려 하지 않아도 시간은 떠를 만들어 유유히 내게로 그렇게 흘러오고 있다.

안무 Choreographer



정신혜 (신라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 정신혜무용단 예술감독)

- **출연**
김효정 노연정 허종규 김예리 강아름 김주현 박미향 박윤희 최효선 구미숙 권예원 김윤정 박성아 서지은 양혜인 이경아 황경혜